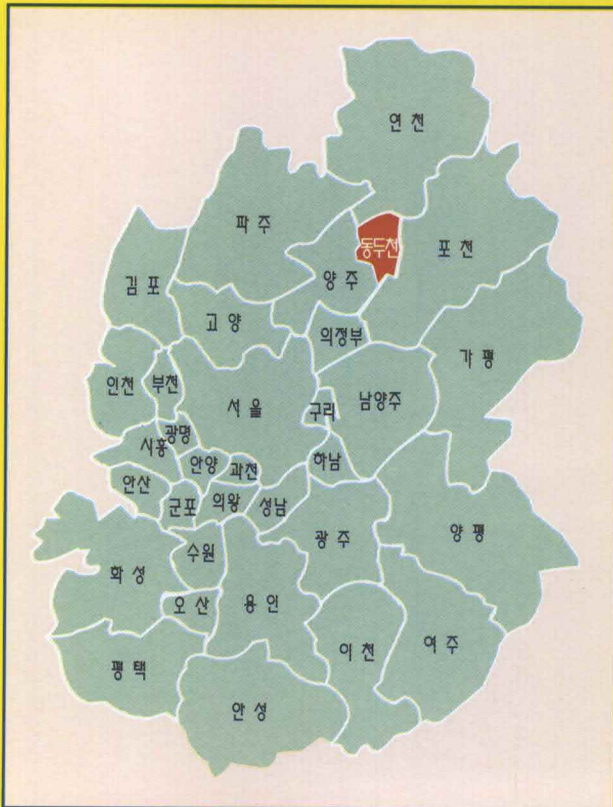


동두천시

고삐반 늘이

이담농악

행 단 제



고삿반 놀이

1. 전승지

동두천시 하봉암동

2. 유래 및 해설

1) 유래

농악의 기원은 축원 음악으로 시작되었다

는 설과 상고시대 전쟁시의 진군악으로서 사병들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도 있다. 사찰 건립을 위한 정재 모금의 방법으로 스님들이 패를 짜서 각처로 돌아다니며 민가에 나가 악기를 사용하여 축복하는 염불을 하고 전곡을 걸립하던 것을 민가에서 본받아 농악기를 다루는데 데서 유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삿반은 무속에도 침투되어 무당이 굿할 때에 굿이 낮은 신을 걸립이라 하



고 집집마다 대청 한구석에 널판지로 선반을 매고 그곳에 걸립신을 위하기도 한다.

2) 특 징

동두천 지방의 고삿반 놀이는 농악대 인원이 20-30여 명으로 구성되며 팽과리를 치는 사람(상쇠)이 농악대의 지휘자가 된다.

농악은 음의 고조는 바랄 수 없고 다만 장단이 빨리치느냐 느리게 치느냐가 문제되며 리듬이 단조롭다. 이 농악 가락은 우리 민족의 성정에 맞아서 듣고 있노라면 절로 흥이 나서 어깨 춤을 추게 되는 신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정초에 농기를 앞세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집 주위와 마당에서 상모를 돌리며 놀다가 집주인으로부터 고삿반을 받고 설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다른 집으로 가서 한바탕 놀아 주는데 이것을 “농악놀이”라고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고삿반” 또는 “걸립패”라고도 한다.

고삿반이란 대문안에 상을 차려 놓고 그 위에 살한되 또는 한말을 담고 발원하는 사람의나전(나이대로 놓은 동전)을 올려 놓고 또 발원하는 사람의 밥그릇에 쌀을 고봉으로 담고 숟가락을 꽂고 무명실을 틀어 꼬아 엮어 놓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 고삿반을 외는 사람은 문밖에 서서 여러가지 덕담을 해주고 그 쌀과 돈을 거두어다가 마을의 공동 기금으로 삼아 다리를 놓거나 악기를 장만하거나 기타 복리 시설에 사용한다.

이렇게 집집마다 돈 다음 정월 14일 저녁에 동네 우물가를 돌면서 돼지 머리와 술 한 통을 차려놓고 우물 고사를 지내면서 질탕하게 마시고 노래하면서 고삿반 행사는 다 끝난다.

3. 출연진 구성

• 총지휘

동두천시 문화공보실장 장석원

• 고증인

동두천 문화원장 조인희

무형문화재 제11호 보유자 최은창

고삿반놀이 경험자 주민 이주현

고삿반놀이 경험자 주민 김수만

• 지도및 연출

동두천 문화원 사무국장 이계홍

동두천여상 교사 김홍래

구 분	성 명
기 수	손종민, 김동균, 김진완, 황태운
기잡이	김옥희, 장효원, 소민경
호적수	김교영
상 쇠	이주현, 김유경, 김명자, 채희정
징 수	김홍래, 김정자, 김귀순
북 수	김미정, 이옥순, 정정숙, 김수만, 임현자
장 고	유도자, 안문자, 강미자, 김금순, 유성준
벽 구	김옥희, 남연주, 최민식, 김정원, 천민영
	신봉덕, 김수자, 박수현, 윤덕금, 남영자
무 등	반종명, 반철호, 박효순, 김필진, 김상환 문경호
탁 자	남봉우
주 민	이명자, 강순덕, 장순이, 이정재, 이우재 양승실, 황사임, 박병순, 박정애, 박순이 유극분, 곽우선, 임영옥, 이성의

4. 고삿반 가사내용

고사 고사 고사로다

만복을 접지할 때

범윤자 돌아든다

삼각산천 기봉되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각도 각읍 마련할 때
 동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동적강수 긴 머리
 북으로 고였으니
 우리나라 금상님은
 은하는 금여차일
 해동 대한은 유명국
 경상도는 칠십이관
 충청도는 오십삼관
 이 대면내는 대면내요
 권명 ***씨 댁에
 중남자 도련님이요
 어깨넘어 길동자
 노랑머리 더벅머리
 작년 같은 험한 세월
 힌용 힌용 가리어 보자.
 혼인장사에 주당살이요
 이세 태평은 후세로다.
 극태민안 시화년풍
 이씨 한양 등극시에
 학을 늘러라 대궐 짓고
 육조 앞에는 오영문
 혜각사
 왕심리 청룡되고
 한강수는 호수가 되고
 인왕산 나린 즐기는
 여천지는 무궁되고
 태평성대가 장안되고
 사바세계로다.
 경기하고 삼십칠관
 강원도는 이십칠관
 양승같은 대목 안에
 내 이대동중 대동이요
 상남자 서방님이요
 하남자 여자기

무릎 밑에 손등자
 우르르 칭칭 자라날 때
 꿈결같이 지내놓고
 모수적삼에 거상살이요
 원근 도중에 왕래살
 내외 간에도 이별살
 들로 나리면 들롱살
 집으로 들어가자.
 안 마당엔 비천살이요
 장독간엔 도두대살
 팔만하고 대장군살
 마루대청에는 성주님살
 아래 뒷방 지식님살
 햇대 끝엔 삼신살
 금일 고사반에 도액을 하니
 즐란 그리도 하러니와
 호구역살이 세다고 하니
 강남은 대한국이요
 십이지국이 열두나라
 호구 별쌍의 손님마다
 신불은 툇 떨어지지만
 앞뒤 강도 열두강



무슨 배를 타고 갈까
 나무 배는 모진 태풍을 못이겨
 돌배를 집어타니
 무쇠배를 타고 가니
 흙두선을 집어타니
 흙이라 슬슬 풀리고
 배 하나를 지어보자
 산으로 오르면 산신살
 물에 들면 용왕님살
 바깥 마당에 벼락살이요
 마룻간에 우마다살
 부엌 한 칸 들어서니
 마루 대청 올라서니
 안방으로 들어서니
 햇대 밑엔 능마대살
 이 살 저 살 휘몰아다
 만사는 대길이요
 이택 가중에는
 호구역살을 풀고 가자.
 우리나라는 조 한국이요
 저궁을 받으려고 드나드는
 십신불이 나오실 때
 십신불이 나오실 때
 이십사강을 건넌적이
 나무 배를 타고 가자.
 흘렁 쓰러져 뒤집혀 버리고
 가로 덩빙 가리았고
 지남철이라 들러붙고
 물이라 힘을 못이겨
 앓다, 그 배는 못타겠다
 수양산 마림산 앵무공작이
 놀다 가던 버드나무
 새베일 쪽루루 훑어서
 거무패는 청산개
 북을 치켜 달고
 이십사강을 건넌으니

부산 장안 잠시 보고
 한양터에 들어서서
 금지문에 진을 치니
 아랫 대궐 윗 대궐
 한양을 뚝 떠나서
 경안장을 썩 지나서
 곤지암을 썩 지나서
 **시 **동 *8번지 **씨 맥의
 하루 이를 자리보고
 천지대역의 백중력을
 일상생거 이증천의
 오상화해 육중복덕
 좋고 좋은 날을 가려
 중애 한쌍 들었구나
 하애 한쌍 들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데 있나.
 농사 한 철을 짓고 가자.
 낮은 데는 눈을 풀어
 벼농사를 지을 적에
 버들가지에 버들잎을
 엮엽선을 모아 보라.
 저무패는 황성개
 두리둥실 울리면서
 부산관에 숙조하고
 부산을 뚝 떠나서
 은지문에 말을 매고
 입문휘선 잠시 하고
 불 탄 대궐 구경하고
 왕십리 살고지요
 아래 쌍용 윗 쌍용
 이천 장 당도하니
 손님마마 들어오신다
 사흘 나흘 보람보고
 여기저기 펼쳐 놓고
 삼하절체 사중유흔
 칠하절명 팔중귀흔

일광보살 점지하여
 칠성님의 은덕으로
 손님마마도 곱게 곱게 지나가서
 글란 그리도 하려니와
 높은 데는 밭을 풀고
 농사 한 철을 짓고 가자
 어떤 벼를 심었느냐
 두렁 밑엔 들청벼요
 많이 먹어라 등터지기
 혼자 먹어라 돼지벼요
 휘휘 둘러라 상모찰
 여기저기심어 놓고
 은방도 그미도 칠성도 다마음을
 보리농사를 지을적에
 가을보리 봄보리
 홀랑 벗어라 쌀보리
 들리붙은 매미보리도
 두태농사를 지어 보자.
 불쌍하다 호래비콩
 알록 달록 까투리콩
 여기 저기 심어 놓고
 옥조 늦조 참절미 차조
 여기 저기 심어 놓고
 팔달낫 싹 갈아서
 서마지기 논배미 가서
 저리로 걸어 이리로 베고
 앵무 같은 한님네는
 앳다, 그 일 못하겠다.
 억억부리 저걱부리
 꿈지없는 동경소요
 들어오면 참바리요
 싹쓸어라 검블벼요
 작게 먹어라 흘쭉벼요
 덜커덩 푸드덩 쟁기찰
 환갑 진갑에 노인벼
 요즈음 시체 나는 벼

여기 저기 심어 놓고
 무슨 보리를 심었느냐.
 싹 깎어라 중보리
 이모 저모 육모보리
 여기 저기 심어 놓고
 만리타국의 강남콩
 방청맞은 주더니콩
 도갈포수의 검은 콩을
 스숙(서숙) 농사도 지어보자
 여수거리 원날 거리도
 잠방이 입고 곰방이 물고
 지게에다 꽃아 지고
 이리로 걸어 저리로 베고
 눈두렁 마다 걸어 놓으니
 따방이 밭을 여드릴 때
 소 한마리를 부려보다.
 별백이는 노고지리
 나가면 빈 바리
 앞으로 부리면 앞노적
 뒤로 부리면 뒷노적
 암불 담불 쌓아노니
 상봉에 깃도 되고
 울음을 울음을 울적에
 저리로 만석이 쏟아지고
 이리로 만석이 쏟아진다.
 개를 치면 내눈백이
 없는 아기는 점지하고
 긴 명은 서려 담고
 정칠월 이팔월 삼구월 사시월
 이 가문에 문은 정을
 정월에 드는 액은
 이월에 드는 액은
 제비 또는 맹백이로 막아주고
 사월 초파일 석가여래
 사월에 드는 액은
 그 네줄로 막아내고

유월이라 유두일
 유월에 드는 액은
 견우 직녀 상봉일에
 까치머리로 막아주고
 팔월이라 한가위날
 이웃집에 나누어 주던
 팔월에 드는 액은
 멍에 노적에 싸노적을
 난데없는 봉덕새가 날아와서
 증봉에 내려 앉아
 이 날개를 툭탁 치면
 저 날개를 툭탁 치면
 말을 치면 용마가 되고
 닭을 치면 봉황이 된다.
 있는 아기는 수명장수
 짧은 명은 이어 담아
 오동지 육석달인데
 다 풀어 찜지하자.
 이월 영등 막아주고
 삼월이라 삼짖날
 삼월에 드는 액은
 관동놀이로 막아내고
 오월 단오 그네 타는
 오월에 드는 액은
 밀짚뱅이로 막아주고
 칠월이라 칠석날
 오작교 다리 놓던
 칠월에 드는 액은
 햅쌀 송편을 많이 빚어
 쟁반 굽으로 막아주고
 구월이라 궁주날에
 국화 농주를 많이 빚어
 사당차리로 막아주고
 시월에리 상달인데
 시루떡으로 막아주고
 동지달이라 동지날

양손에 죽 퍼들고
 이리 저리 끼었으니
 뜨거운 팔죽을 뒤집어 쓰고
 동지달에 드는 액은
 흰 떡 가래로 막아주고
 내년 정월 열 나흘날
 방망이 맞은 북어 대가리
 막걸리 한 잔 끼얹은 채로
 만사가 대길이요
 마음가짐 잡순대로
 동지에 하는 굿은
 생각을 해도 측근자거니
 정월하고 상달인데
 이웃에 모셔다가
 구월에 드는 액은
 좋고 좋은 날 가리어서
 시월에 드는 액은
 동지 팔죽을 정히 썬어
 중문 때문 드나들며
 오는 잡귀 가는 잡귀
 앓다, 뜨겁다 도망가자.
 설달에 그믐달
 설달에 드는 액은
 오곡밥을 정히 지어
 백지 한 장에 들들 말아
 원강에 소멸하니
 백사가 여일하고
 소원성취 발원이라.
 이 고사 복 받으신다
 받아 주어서 오실적에
 고사만으로 놀아보세

이담농악

1. 전승지

동두천 송내동

2. 유래 및 해설

1) 유래

이담(동두천시의 옛 이름)농악은 경기.충청 판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농악으로는 행단농악(현 동두천시 지행동)과 송내농악(현 동두천시 송내동)과 안흥리농악(현 동두천시 동안동)과 광암농악(현 동두천시 광암동)이 해방 전후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려진다.

2) 해설

당시 행단농악에서 활동하던 어윤희(동두천시 지행동)씨와 송내농악 벽구로 활동하였던

잔병우(동두천시 송내동), 어윤성(동두천시 송내동), 어윤수(동두천시 송내동)의 고증에 의하면 4월 초과일부터 단오절까지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천년역사를 가진 은행나무 밑에서 마을 농사일을 위한 품앗이 주민대동굿을 벌여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액운을 떨쳐내고 화합과 단합을 위한 연희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한다.

특히 당시 행단농악단 상쇠로 활약했던 이씨(작고, 동두천시 지행동)은 3무동 위에서 상쇠복상을 돌려 출중한 기량을 보여 양주(남양주와 분리전)지역에서 그 기량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가락으로는 광복가락이 있으며, 또한 벽구들은 농사풀이 동작을 직접 소고를 들고 행하였다.

농기에는 태극기를 그려 넣었던 것이 특이한 면이라고 그 고을 주민 이강진(동두천시 지행동)씨와 송내농악 수벽구 장병우(동두천시 내행동)씨는 전한다.

3) 특 징

- (1) 쇠가락이 힘차고 섬세하며 윗눌음이 화려하며 12상모가 돋보인다.
- (2) 상쇠의 채발림이 섬세하고 채상놀이가 화려하다.
- (3) 판제가 다양하며 가락의수는 많지 않으나 일채, 삼채, 칠채 굿거리가 적절하게 잘 다듬어 있다.
- (4) 전승의 내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락의 신명을 가지고 있다.

3. 구 성

1) 판제구성

- (1) 입장굿 : 일채-삼채-일채-인사굿
- (2) 판 굿 : 칠채(오방진)-일채-난타(상쇠의 치발림)-두줄벽구놀이-한줄백이벽구놀이-사통백이-일채-좌우치기
- (3) 지배별 놀이 : 12발상모-농사풀이-무동
- (4) 맺 음 : 삼채(원진)-좌우치기-대대엮

치기-일채-인사굿

2) 출연진 구성

• 총지휘

동두천시 문화공보 실장 박영철

• 고증인

동두천 문화원장 조인희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상쇠 김기복

송내농악 수벽구 장병우

• 지도 및 연출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이계홍

동두천여상고 민속놀이반 교사 김홍래

농악지도 윤태중

구 분	성 명
기 수	장애란, 김형정, 권준오, 성동현, 강근우
기잡이	고미경, 황지경
호적수	김홍래, 정은혜
상 쇠	김유경, 최미선, 강미자
징 수	채미화, 서현주
북 수	조명희, 박현정, 장효원, 유미옥, 남궁연 고양옥, 김미례
장 고	강미영, 이은정, 이영란
벽 구	권현주, 이정미, 정미정, 이은순, 홍미자 박건영, 김연실, 안주옥, 백진주, 신진희
무 동	정영주, 강숙영, 문선희, 박은미, 박영주 박진희
잡 색	이지은, 이순정, 김수구, 이현우, 홍제완 권혁준

행 단 제

1. 전승지

동두천시 지행동

성종대왕대에 무인 이었던 어유도장군이 소년시절 이 놀이의 힘겨루기에 장원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행목아래에 단을 쌓고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여 세조조에서 장원급제하여 나라에 큰기둥이 되었다고한다.

2. 유래 및 예설

행단제(杏壇祭)의 처음은 조선초기부터 이어져온 놀이로 구전되고 있는 놀이로 세조와

3. 구성 및 줄거리



이 놀이의 구성은 인근 3개부락(행단, 안골, 생골)의 주민들이 매년 10월 상달 길일을 택하여 3일간 계속되었다고 한다. 또한 행단제를 알리는 벽문이 마을에 붙게 되면 인근 3개부락 입구에는 인줄이 쳐져 동네사람은 물론 타부락사람들의 왕래가 금기시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8.15해방 전까지는 원형대로 지속되어 왔으나 6.25사변 전후로 놀이의 원형이 축소된채 2년 또는 3년에 1회씩 수제(樹祭)만을 지내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금년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계기로 재발굴하여 출전하는 것이다.

1) 길놀이(입장굿)

출연 대기장소에서 부터 농악을 치면서 입장하여 은행목이 있는 마당까지 모든 출연진이 이동하여 한마당 잔치를 벌인다.

2) 행단제의식

제주의 주도 아래 수신에게 드리는 제의식으로 축관이 주문을 하고, 끝나면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3) 대동놀이

- (1) 농악놀이
- (2) 줄다리기
- (3) 힘겨루기
- (4) 농악놀이

4) 퇴장

힘겨루기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 흥겹게 농악을 치면서 퇴장한다.

4. 특 징

민속놀이는 대체적으로 그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놀이 자체가 목적인 놀이가 있고,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 내기놀이, 겨루기 놀이, 개인의 복락이나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는 놀이로 나눌수 있다.

행단제는 동신인 수신에게(1천여년된 은행나무)그 해의 풍년에 감사하고 이듬해의 풍년과 마을의 무사태평(無事太平)을 기원하는 제의식으로 시작되는 대동제의 형태로서 줄다리기, 씨름, 힘겨루기, 농악 등이 뒷풀이로 구성된 놀이이다.

특히 이 놀이는 마을간의 장정을 내세워 힘겨루기를 하여 장원(壯元)을 뽑는데, 장원자가 나온 마을에서 장원기와 힘겨루기에서 사용한 자연석(무게200근, 마을에 300여년간 전해지는 돌)을 다음 놀이가 있을때까지 보관하는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다.

5. 출연진 구성

- 총지휘
동두천시 문화공보실장 문금용
- 고증인
동두천문화원장 조 인희
향토사가 조규진
행단제전수자 이채혁
행단제전수자 이강진
- 연 출
동두천문화원사무국장 이계홍
- 지 도
동두천여상고 민속놀이반 교사 김홍래
농악지도 윤태중

■ 출연진 명단

구 분	성 명
기접이	이준호, 김덕호, 채희원, 윤성빈, 이호준
	유용승, 김성민, 김영진, 설연정, 김인재
	박남영, 이진희
태평소	유재옥, 정미라, 차관순
쇠	고양옥, 김미례, 김지숙, 김종나, 채희정
징	이은영, 김승화, 심재연
장고	강미영, 이은정, 한미라, 이영란, 노영미
북	김선영, 이은실
	남궁연, 황지경, 박영주, 최정자, 유지희
박구	김옥순
	이정미, 안주옥, 홍미자, 이은순, 백진주
	김연실, 박세정, 김주미, 박은수, 성대선
	이경숙, 김자림, 오유미, 전혜영, 양정아
	이미경, 조해정, 김정인, 황 경, 최현숙
	오윤미, 김진숙, 심경순, 윤희정, 최수정
	김창희, 김영내
축관	반종명
제관	박준빈
집사	이채영
주민	박호빈, 이명재, 박대준, 박홍빈, 박재선
	한해식, 박재성, 백영순, 정경책, 손창우
	윤종배, 이경호, 지민우, 이강주, 박광희
	박도희, 박윤희, 박양희, 이옥임, 남연주
	황정인, 고복길, 황석만, 이경순, 남정규
	이창현, 차 용, 천성호, 이진철, 이덕재
	최봉상, 이창재, 이강진, 송요섭, 박찬희
	황정옥, 서영순, 윤순자, 박채희, 박관희
	김성희, 하광순, 조인호, 송상민, 원대호
	안정훈

